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피살에 따른 정국 불안 예상

□ 카디르(Qadir)¹⁾ 부통령 피살

- 2002년 7월 6일 공무부 청사를 나서던 하지 압둘 카디르(Hajji Abdul Qadir) 부통령이 괴한 2명의 총격으로 사망.
 - 암살범들은 운전사와 2명의 경호원들도 사살한 뒤 차량으로 도주.
- 7월 7일, 장례식은 치러졌으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 위원회 발족.

□ 사건 배후와 전망

- 이번 암살 사건의 배후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1) 他파벌에 의한 암살 가능성

- 파슈툰족 출신인 카디르는 反탈레반 투쟁시 북부동맹과 연대하였으나 그 중심 세력인 타지크(Tajik)족과는 관계가 원활치 않았음.
- 탈레반 정권 축출후 타지크족은 새 정부와 수도인 카불지역

1) 현 임시정부내 2인자로서 아프가니스탄 최대 종족인 파슈툰(Pashtun)족 출신 군벌. 낭가하르(Nangahar)주지사를 지내다 탈레반 정권에 의해 쫓겨난후, 북부동맹과 연대하여 反탈레반 무장 투쟁을 벌임.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 붕괴후 낭가하르 주지사로 복귀하였으며, 현재 부통령과 공무장관직을 겸임 중이었음.

에서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으나, 파슈툰족 출신인 카르자이(Karzai) 대통령이 同족 출신 주지사인 카디르를 중앙 정부로 불러들여 요직에 임명시키자, 세력 약화를 우려해서 암살하였을 가능성

2) 아편 조직에 의한 암살 가능성

- 최근 카디르 부통령의 대대적인 아편 단속을 통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아편 조직들이 보복 암살하였을 가능성.

3) 지역 세력들에 의한 암살 가능성

- 주지사 재직시 쌓은 부와 권력을 시기한 지역 세력들이나 정적들에 의한 암살 가능성
- 이번 암살사건은 카디르 영입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던 카르자이 대통령의 의도에 타격을 주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정국 운용 변화와 권력 투쟁이 예상됨.
- 관광교통장관의 피살 사건²⁾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치안 불안이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여 향후 국가 재건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책임 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

2) 2002년 2월 14일, 압둘 라흐만(Abdul Rahman) 관광교통장관이 카불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려는 순례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